

은혜와 진리소식

2025년 4월 6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924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큰 사고를 당한 남편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남편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 함 정 자 -

저는 결혼하여 안양에 살면서 큰딸을 낳고는 시댁이 있는 충청남도 논산의 한 동네로 내려갔습니다. 둘째 딸을 낳은 후 가게가 딸린 집으로 이사하여 잡화를 파는 상점을 운영하였습니다. 아들을 귀하게 여기던 시절에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부정적인 말을 듣다가 아들을 낳자 뿔뿔이 기뻐고, 이어서 넷째 딸을 낳았습니다. 남편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집안일을 등한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 혼자 아이들을 돌보면서 장사를 하려니 쉴 틈이 없었습니다. 아이들 밥도 잘 챙겨주지 못하고 아이들끼리 끌어안고 자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저의 삶은 어쩌면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인내하였습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면 교회에 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열심히 상점을 운영하면서 모은 돈으로 임야를 매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들도 보살펴 주셨습니다. 아이들 모두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큰아이가 중학교 2학년일 때 남편이 병원에 계약직 관리직원으로 취직하여 방 한 칸짜리 전셋집을 얻어 서울로 이사하였습니다. 한 방에서 저희 부부와 아이들 4명 이렇게 6명이 웅기중기 모여서 생활하였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저도 밖에서 빌딩 청소일을 하였습니다. 여섯 살짜리 어린 막내딸과, 딸이 먹을 것과 요강을 방안에 두고 밖에서 문을 잠근 채 일을 하러 다녔을 정도로 어두운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생활이 힘들수록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더 열심히 교회에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였습니다. 지금도 그 당시를 생각하면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저희 부부가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2년만에 방 두 개짜리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의 바람대로 남편이 정규직원으로 발령받은 후에 안산시로 주거지를 옮겼습니다. 은혜와진리교회에 다니면서 더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조용목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신실하고 사랑이 많은 교인들과 함께 교회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이 더 없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구역장의 거룩한 직분도 받아서 열심히 이웃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하나님, 하루빨리 셋집 생활을 청산하고 저의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게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에 예배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열심히 목사님의 설교를 경청하고 있었는데, 강단에서 세 번이나 남편의 얼굴이 보였다가 사라지는 기이한 현상을 보았습니다. 웬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하고 있을 때, 시골에서 오래 전에 제가 남편 명의로 사두었던 그 임야를 좋은 값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땅값이 저희의 기대보다 크게 낮아 팔지 않고 있다가, 매입 당시보다 40배가 넘는 금액을 받고 그 임야를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저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가정형편이 조금 나아지자 남편이 다시 밖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따라 금요기도회에도 참석했던 남편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험한 말로 저를 폄박하므로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참고 견디기 힘들었지만 언젠가 남편이 회개하고 성도가 될 것이란 기대와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셔서 더 큰 아파트를 사서 이사하였습니다. 구역의 많은 성도님들을 모시고 구역예배를 드릴 때 무한히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나라에 IMF 외환위기 사태가 일어나면서 큰 딸과 둘째 딸 부부가 각각 운영하던 사업장도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루는 제가 또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릇이 2개가 보이는데, 그릇 하나에서는 환하게 밝은 빛이 나는 반면 다른 그릇은 어둡고 희미하게 보이는 꿈이었습니다. 왜 그런 꿈을 꾸었는지, 그 의미가 매우 궁금했습니다.

시어머님의 생신 때 논산의 시댁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던 길에 화성시에서 자동차운전학원에 근무하는 아들에게 잠깐 들렀습니다. 추운 겨울 날씨에 남편이 커피가 마시고 싶다며 아들의 차에서 내려 건너편에 있는 자판기를 향해 걸어가다가, 불법체류자인 외국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치이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남편의 몸이 공중에 붕 떴다가 언 땅에 그대로 곤두박질을 쳤

습니다. 얼른 뛰어가서 살펴보니 남편의 얼굴 여기저기에서 피가 철철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입고 있던 옷을 얼른 벗어서 남편의 머리를 감싼 채 급히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머리를 크게 다쳐서 치료를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급히 수원에 있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남편을 옮겼으나 이 병원 역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서울에 있는 병원까지 연락할 수 있는 병원에 다 연락을 취했지만 당장 뇌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없거나 중환자실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사고를 당한지 4시간 만에 용인수지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워낙 상태가 위중하여 저희 가족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하나님께 기도만 하였습니다. 응급수술에 이어서 다섯 차례나 더 뇌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3개월, 일반병실에서 4개월 동안 있으면서 열심히 치료를 받고 몸 상태가 좋아진 남편이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당신과 아이들이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내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나를 살려주셨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을 듣고 저는 전에 제가 기이한 꿈을 꾸고 그 꿈의 의미를 궁금해했던 일을 생각하며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남편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였습니다. 그 후 남편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열심히 교회에 다녔습니다. 주일예배와 함께 남성 구역예배에도 참석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처럼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남편이 변화되었습니다. 생전 집안일 한 번 안 도와주었던 사람인데, 시장에 가면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고 집안일도 조금씩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시간에 목사님께서 신유의 기도를 해주실 때마다 아픈 곳에 손을 대고 ‘아멘’ 하며 믿음을 고백하고 기도하더니,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픈 것이 나았다며 간증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며칠씩 집에 없을 때에도 혼자 교회에 가서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중예배에도 참석하여 저를 매우 기쁘게 해줍니다. 남편이 뇌를 크게 다쳤었기 때문에 제가 난감한 상황에 처하는 때도 있지만 ‘오늘 내가 살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남편을 보면 그저 고맙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됩니다.

저는 천안성전에서 은혜와진리교회의 권사로서 주님과 교회를 섬기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제가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늘 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위로로 저에게 큰 위로와 새힘을 주시고, 저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가정복음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돌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구역공과

제2권 (제9단원 : 시험을 이기는 성도)

(제43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세

- 본문 : 히브리서 12:5-13

• 요절 :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곤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히 12:12-13)

• 찬송 : 399장(새찬송가 546장), 363장(새찬송가 337장)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걸길로 행할 때 징계를 가하시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성경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히 12:6)는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참 뜻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지니고 있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잘못을 범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치 육신의 부모가 잘못된 행실을 하는 자녀를 징계하듯이 성도들이 잘못할 때 징계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범해도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근심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알아 낙심치 말고 믿음과 인내로써 징계를 통하여 더욱 성숙된 성도로 변화되어야 하겠습니다.

1.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는 먼저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잘못된 일과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자기의 잘못이나 부족한 점을 찾는 일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럴 때에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자세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님’(요 16:8)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죄와 잘못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잘못한 일이 무엇인지 깨달은 후에는 하나님 앞에 모든 잘못을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고후 7:10)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잘못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통해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요일 1:9)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솔직하게 죄를 회개하면 즉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2. 믿음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랑하는 자녀가 죄를 범하면,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실 목적으로 징계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당할 때 굳센 믿음을 가지는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선민을 향하여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 삼 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호 6:1~3)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돌아오는 자들을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호세아의 권면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의 백성에게 향하고 있으므로 회개할 때에 비가 산천 초목을 축축히 적서 주듯이 우리의 매마른 영혼을 적서 주십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잘못을 범한 자녀들에게 가해져 영육 간에 지치고 피곤하게 되어 고달픈 생활을 하게 되지만, 일단 성도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징계로 인한 모든 상처를 치료하시어 아물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징계를 받아 영육이 쇠약해진 때에라도 낙심치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3. 인내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히 12:10)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징계를 가하시는 목적은 유익을 주시려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징계를 받는 바른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수치와 고통을 인내로 이겨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너무나 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의 극심한 고통도 견뎌 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징계를 받을 때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할 힘을 얻게 하기 위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 12:2)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해 영생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온 영생의 약속을 바라보며 인내해야 하겠습니다. 난간이 없는 좁은 다리를 건너갈 때 시선을 곧게 앞에 있는 한 지점에 고정시키는 것은 다리를 가장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인 것과 같습니다.

성도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아무런 징계도 맛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닙니다(히 12:8). 성도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요 징계를 받고도 회개치 않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받을 때 낙심치 말고 회개와 믿음과 인내로써 이겨냄으로 그 징계를 통하여 한 단계 더 신앙의 성숙을 도모하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은혜와 진리교회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031-443-3731~2, 446-9184

수원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314번길3 T.031-225-3731, 234-3732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031-486-3731~2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02-502-3731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031-318-3731~2

광명 : 광명시 소하로109번길 13-18 T.02-894-3731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 (청천동) T.032-507-3731~2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031-462-3731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031-716-3743, 716-7832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다길 5 T.02-2632-3731

산본 :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031-395-8227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032-469-3742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032-652-3731~2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 (중산동) T.031-906-3731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031-497-3732

영통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031-205-3732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031-567-3731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031-422-9200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031-298-3739

전원(수양관,본관) T.031-227-5992~3, 227-3739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031-985-3731~2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031-662-3731

안중 :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031-684-3731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041-555-3731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063-225-3731

양주 :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031-863-3731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033-764-3735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02-459-3731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관동동) T.055-312-3731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031-337-0688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032-751-3731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충남로41번길 30 T.042-471-3736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168 T.031-763-3720

남양 : 화성시 시청로102번길 56 (남양리) T.031-355-3729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053-522-3731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041-667-3731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북로 55 (천천동) T.031-271-3731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031-8015-3731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041-353-3731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 (보람동) T.044-862-3732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063-239-1004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2572 T.033-463-1312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46-5 (황성동) T.054-772-7867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39번길 21-18 T.041-534-3731~2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043-848-3731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031-662-3731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2 (쌍계리) T.063-351-7518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055-752-6675

온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041-533-3731